



브라운아이즈걸스 4년만에 컴백

리메이크 앨범 '리바이브' 음악감상회

가요사 명곡 재해석... "책임감·자신감 담긴 앨범"

"6장 정규앨범을 내면서 퍼포먼스 위주의 곡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의 목소리로만 된 앨범을 만들어 봤어요. 예전 노래를 저희 목소리로 재해석한 곡들로 채워봤죠." (미료)

그들 브라운아이즈걸스는 올해로 데뷔 14년차를 맞은 사실상 국내 최장수 현역 걸그룹이다.

국내 걸그룹으로는 나름 독보적 영역을 구축한 브라운아이즈걸스가 한국 가요사의 명곡으로 빼곡히 채운 리메이크 앨범을 들고 돌아왔다. 4명이 '완전체'로 낸 앨범은 2015년 발표된 정규 6집 '베이직(BASIC)' 이후 4년 만이다.

브라운아이즈걸스는 28일 서울 강남구 CGV 청담 씨네시티에서 음악감상회를 열고 리메이크 앨범 '리바이브'(RE_vive)를 공개했다.

더블 타이틀곡인 '원더우먼'과 '내가 날 버린 이유'를 비롯해 '애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사랑밖엔 난 몰라',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초대', '편지' 등 1980~2000년대 정경환 명곡이 브라운아이즈걸스의 개성을 만나 새 옷을 입었다.

제이는 "거의 죽다 살아난 정도다"라며 작업 과정의 어려움을 털어냈다. 그는 "요즘 뉴트로가 유행인데 저희가 잘 해석해서

지금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싶기도 했고, 신곡이 수월한데 어려운 길을 선택한 데는 서로에 대한 믿음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나르사는 "책임감이 정말 많이 따르는 앨범"이라며 "자신감도 분명 있다고 생각할 만한 앨범"이라고 말했다.

더블 타이틀 한 곡인 '내가 날 버린 이유'는 이민수 작곡가가 편곡을 맡았다. 1995년 그룹 베이스스가 발표한 R&B 발라드에 웅장한 공간감을 더하고, 멤버들의 폭발적 가창력으로 슬픈 감성을 극대화했다.

황수아 감독이 연출한 뮤직비디오도 '할로윈'을 테마로 처연한 느낌을 살렸다.

또 다른 타이틀곡인 '원더우먼'에는 조원선 원곡보다 평기분 분위기가 감돈다.

뮤직비디오에서는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멤버 4명이 흰 면사포를 쓴 드래그 킨 댄서들에게 둘러싸여 춤을 춘다. 멤버들이 신랑, 댄서들이 신부 역할을 맡았는데 전형성을 벗어난 연출이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예쁜 표정을 지어주어도 안됐고,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날 것'같은 표정을 많이 지었는데 굉장히 잘 보여진 것 같아요.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데서 묘한 분위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죠."(가인)

지오디(god)의 '애수'는 라틴 팝으로 다시 태어났고, 전설적 듀오 어텐날의 '하늘'에는 일렉트로닉 요소가 더해졌다.

'사랑밖엔 난 몰라'(가인),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나르사), '편지'(제아) 등 멤버들 솔로곡도 한 곡씩 담겼다. 미료의 솔로곡인 '초대'는 원곡자인 엄정화가 직접 피쳐링을 했다.

"앞으로 완전체 활동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멤버들은 "신곡 계획은 오늘(음원 반응)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며 웃어 넘겼다. 그러나 오랜만의 앨범이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4년만의 공백을 보낸 가인은 내년초 솔로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10대 20대도 아닌 걸그룹이지만, 이렇게 오래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희 팀은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생각해요."(나르사)

/연합뉴스

tvN '김현정의 센터:뷰', 1.2%로 시작

화성연쇄살인사건의 8차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인물부터 5년째 문화예술 비영리단체를 이끌어온 배우 김남길까지, 첫방송답게 다채로웠다.

2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 방송한 tvN 새 시사교양 프로그램 '김현정의 센터:뷰' 1회 시청률은 1.2%(유료가구)를 기록했다.

'김현정의 센터:뷰'는 최근 드라마, 예능을 넘어 시사교양 분야까지 장르 확대를 시도 중인 tvN이 CBS를 대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PD(사진)를 내세워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는다.

김 PD는 첫 TV 출연에 초반 다소 긴장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오랜 기간 시사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한 관록을 살려 비교적 여유롭게 프로그램을 이끌었다.

너너 대결을 부른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한 단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은 화성연쇄살인사건 8차 범인으로 옥살이를 했으나 최근 노령을



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윤모 씨와의 단독 화면 인터뷰로 이어졌다. 인터뷰 내용 자체는 '김현정의 뉴스쇼'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접한 것이었지만 화면으로 보는 새로움이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문화예술 NGO '길스토리'를 5년간 이끈 배우 김남길과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수억 원을 들여 사비로 단체를 운영해왔다는 김남길은 "좋은 사람이라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 옳은 곳을 향해 가고 싶다. 그래서 성장보단 성숙이 좋다"는 자신만의 신념을 밝혔다.

이렇듯 첫 화가 풍성하게 꾸며졌지만, 짧은 시간 내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려다 보니 중간에 내용이 급작스럽게 끝나는 부분이나 추박한 화면 구성 등은 아쉬운 점으로 남았다. /연합뉴스

"역대 KBS 시상식 유튜브로 보세요"

가요·연기·연예대상 스트리밍서비스

KBS가 유튜브 채널에서 약 30~40년간에 이르는 방대한 시상식 영상자료를 스트리밍 서비스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역대 KBS 가요대상은 'KBS K-POP'과 'Again!가요톱10' 채널에서, 연기대상은 'KBS 드라마와 '갈매기'에서, 코미디대상은 'KBS 엔터'와 '크큭터미'에서 매주 월~금요일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가요대상은 30일부터, 연기대상은 다음 달 7일부터, 연예대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각 채널에서 스트리밍이 시작된다.

시상식 전회차가 방영된 뒤에는 각 시상식의 하이라이트 장면만을 모아서 편집한 '레전드 순삭'이 일주일간 서비스될 예정이다.

KBS는 향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아이브를 적극적으로 개방, 공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역대 KBS 연기대상 정주행



역대 KBS 가요대상 정주행



역대 KBS 연예대상 정주행

TV프로그램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모두 다 쿵따리(재)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5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미래당)	10 좋은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미래당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기본 좋은 날	00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바른미래당 40 SBS 뉴스 50 KBC 생활뉴스
11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00 동백꽃 필 무렵(재)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헬로키토 유니버스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어쩌다 발견한 하루(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별의별 중계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다큐 인사이트(재)	30 헬로키토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우리말 겨루기(재)			00 뉴스브리핑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벅스붓 50 빠샤메카드S	
4	00 시사간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모두 다 쿵따리	00 테마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반지의 비밀일기 2 15 쏠! 내 친구는 빅파이브 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5 MBC 뉴스 25 좌충우돌 만국 유망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7	00 KBS 뉴스 7 40 미니디Q	50 강력추천 배틀 트립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8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어쩌다 발견한 하루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시사토론 '10' 55 더 라이브	00 동백꽃 필 무렵	05 실화탐사대	00 시크릿 부티크
11	35 UHD 승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썸바이벌 1+1	05 라디오스타 1~2부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12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KBS 재난방송센터(재)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 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30 나이트라인

EBS1

07:00 로보카 폴리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특!톡! 보니하니
07:15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크프라이미	19:00 스파이더맨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3:55 EBS 초대석	19:30 생방송 판다다
08:00 당동영 유치원	14:45 몰랑	20:00 머털도사
08:30 띠띠뽀 띠띠뽀	14:55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모험 남미 에콰도르 칠레 -신의 산 코트팍시>
08: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10 로보카 폴리(재)	21:30 한국기행 <섬마을 밥집 3부 팔금도, 섬마을 역순이의 기찬 밤상>
09:00 출동! 슈퍼왕스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1:50 전대미문 다크실업 UP, 63세 그들
09:30 원더볼즈	15:55 출동! 슈퍼왕스(재)	22:45 극한직업
09:40 아기 동물 귀여워	16:10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3:35 EBS 초대석
10:00 지식의 기쁨	16:25 마사와 곱(재)	24:25 지식의 기쁨(재)
10:30 한국기행(재)	16:40 당동영 유치원(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12:00 EBS 정오뉴스	17:30 패파 피그(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30일 (음 10월 3일 庚子)

<p>36년생 다각적으로 살펴보면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48년생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60년생 꽃피는 봄날을 맞이하러나 가히 경사라 할만하다. 72년생 개념의 혼란이 생기고 산만해지기 쉬운 때이다. 84년생 상대에게 배려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투자가 된다. 96년생 작은 불편은 보이니 커다란 지장이 있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68, 17</p>	<p>30년생 장고한다면 참된 결론에 이른다. 42년생 어느 정도의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도량이 달라진다. 54년생 힘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66년생 철저히 대비해야만 이룰 수 있다. 78년생 가치 상승의 기회가 될 것이니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90년생 자신이 마음먹었던 대로 진행해도 지장이 없었다. 행운의 숫자 : 54, 09</p>
<p>37년생 체계를 그르치면 행하지 아니할만 못하다. 49년생 결과 속이 짙은 상태이니 서둘러 수확하는 것이 이익이리라. 61년생 때를 맞추어야 제대로 성과를 본다. 73년생 다양한 기회와 조건들이 보인다. 85년생 천우신조로써 대길하는 운세이다. 97년생 애태우면서까지 함께할 이유가 없다. 행운의 숫자 : 46, 67</p>	<p>31년생 찬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상응하는 이치에 놀랄 것이다. 43년생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리라. 55년생 매우 귀중하다고 볼 수 있으니 여과 없이 참고함이 나올 것이다. 67년생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79년생 못하는 바가 있다면 미루지 말고 행해야 한다. 91년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1, 19</p>
<p>38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거든 미련 없이 거두어 들여라. 50년생 거침없이 밀어붙여야 가다가 잡힐 것이다. 62년생 손뼉맞이에 만반의 준비를 해두라. 74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다. 86년생 망각하고 있지 않나 살펴볼 일이다. 98년생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여 몹시 당황할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28, 81</p>	<p>32년생 먼 길 떠난 과거 앞에 날이 저문 형상이다. 44년생 초기 상황에서 거의 승부가 나버릴 가능성이 높다. 56년생 값어치 있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68년생 오리무중이었던 것이 서서히 운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80년생 수직적이고 역동적인 위상이다. 92년생 좋다고 너무 기뻐할 일도, 나쁘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행운의 숫자 : 18, 08</p>
<p>39년생 오랜 회포를 풀게 되는 기쁨이 보인다. 51년생 시기를 놓치면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됨이니 늦지 않도록 하라. 63년생 최선을 다 해왔는지 돌이켜 볼 일이다. 75년생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관재구설을 자초 하리라. 87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99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2, 40</p>	<p>33년생 직접 처리하는 것이 백번 낫다. 45년생 호조를 띠면서 진척을 보이겠다. 57년생 상태가 계속된다면 총틀하게 되어 있다. 69년생 삼사일언 한다면 크게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실수는 면하리라. 81년생 서광이 비추 오는 길목에 놓여 있다. 93년생 상호 관련된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6, 60</p>
<p>40년생 막연한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무방하다. 52년생 기본적 인 지를 생각해가려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64년생 차선책을 강구해 두어야만 할 것이다. 76년생 임체적인 고집이 효과적이다. 88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임하는 것이 낫겠다. 00년생 판도가 갑자기 변해버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3, 99</p>	<p>34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46년생 건전하여 손해는 없을 것이니 적극적으로 가담하라. 58년생 용기 있게 추진하면 흉사도 비껴 간다. 70년생 오랫동안 고집해 왔던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 될 것이리라. 82년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화중지병에 불과 하느니라. 94년생 평대신 닦아지만 만족도는 괜찮다. 행운의 숫자 : 35, 83</p>
<p>41년생 내버려 두면 위험하니 즉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니라. 53년생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사실을 알라. 65년생 관련시키지 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77년생 함께를 벗어난다면 중차대한 단초들이 발생할 수 있다. 89년생 건설적인 요인이 보이니 그것에 중점을 맞춰라. 01년생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61, 07</p>	<p>35년생 해독은 과제의 실마리를 찾는 판세이니라. 47년생 여러 사람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원만하다. 59년생 작심한 바와 행동이 일치해야 성취하리라. 71년생 생산적인 관계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83년생 성과를 거두면서 유리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95년생 중차대한 임무를 띠게 될 것이니 언행을 삼가라. 행운의 숫자 : 17, 37</p>